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솔직, 대담한 性

당당한 아내… "피임은 당신이 하세요"

영구 피임 방법인 정관수술의 경우 수술방법은 과거 60년 전이나 현재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술하는 수술법인데, 사회현상을 무척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멜더스의 인구론에 근거하여 하나의 입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믿던 시절이 있었다. 6·25전후 60년대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또 고도성장을 시작하던 70년대까지만 해도 빈곤의 원인을 다산에서 찾다 보니까 피임이 권장되고 정부차원에서 가족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정부에서 통제하고 공무원들은 피임을 권장하는, 심지어 예비군 훈련장에까지 공무원이 출동하여 정관수술을 권장하고 수술을 하면 훈련까지 면제해 주던 시절이다. 가족계획에 공이 많은 공무원은 표창까지 했다.

현재는 달라졌다. 인구 노령화, 국민연금 고갈론, 경제 정체론, 세계에서 낮은 여성출산율등 인구 감소로 인해서 벌써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여 다산 정책으로 전환을 하였으며 여러 지차 체에서는 이미 출산 아이에 격려금, 아파트 분양하는데 까지 인센티브를 준다고 야단법석이다. 특히 호남 지방은 이미 산업의 낙후화로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젊은이 들은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새로운 젊은 층은 유입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부터 이미 정관수술은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일반수술로 전환되고 과거에 일반수술이었던 정관복원술이 보험적용을 받고 불임부부로서 고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시험관아기 시술법까지 보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현재 외래에서 정관수술이 더 증가를 하고 있다. 왜일까. 여성들의 피임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방법으로 알고 있으며 여성들도 이제는 가정경제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위험이나 부작용이 있는 피임을 하기 보다는 당당히 남편한테 피임을 요구하는 상황 때문인 것 같다.

현재 남성이 정관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3일 정도는 휴가를 주는 회사가 매우 많다. 정관수술은 정자의 통로인 정관을 막아 고환에서 만들어지는 정자가 정액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술법. 정관을 막아도 고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한때는 정신병으로 성욕과잉상태에 있는 환자나 유전적 소인방지 내지는 우생수술로 쓰인 적도 있으며 정관을 차단하면 정자 형성조직이 감퇴하는 반면에 남성호르몬 분비조직이 증가한다고 하여 회춘법의 목적으로 쓰인 적도 있다.

그런데 정관수술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없는 건전한 가임부부의 남자 ▲정상의 미혼남자 ▲심한 건강염려증이 있는 남자 ▲음낭 속에 심한 병변이 있는 남자 ▲남성으로서의 의지와 정력이 약한 남자 ▲배우자가 생식력이 없는 남자 ▲수술에 대한 배우자의 반대를 받거나 수술을 강요당한 남자 ▲부부의 금슬이 나빠서 가정불화가 잦은 남자 ▲복원수술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남자 등이다.

수태조절은 인간의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양식이기 때문에 이 수술로 인하여 부부생활에 불편이나 불만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피임법은 피임효과가 확실하고, 심신에 해가 없으며, 성감이나 성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간편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관절제술은 이 조건을 완벽할 정도로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도 충분히 낳고 피임이 필요한 경우는 정관절제술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젠틀맨 비뇨기과 원장〉

뉴스퀴즈

76. 미국프로야구의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홈런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이 선수는 5일(한국시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개인통산 755호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 최고기록 보유자였던 행크 아론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으로, 지난 1986년 데뷔해 22시즌 만에 이룬 대기록입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배리 본즈 ②이승엽 ③최희섭 ④박찬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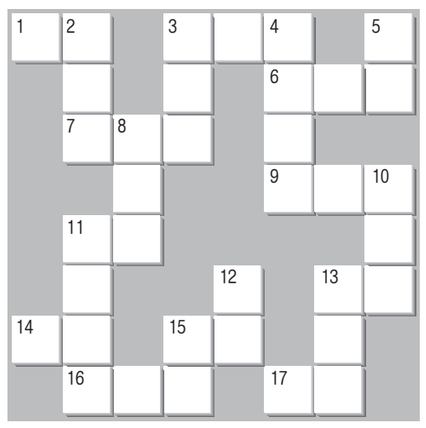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 263 >



➔ 가로풀이

1.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노끈이나 실, 쇠줄 등으로 여러 코의 구멍이 나게 얽은 물건. 3.조선 후기에 이용후생을 실천하고 실사구시를 연구하던 학파를 이르는 말. 6.대오리로 길고 둥글게 얼기설기 엮어 만든 기구. 7.관공서 등에 마련되어 있는 취재 기자들의 대기실. 9.얼굴이나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놓은 대. ~ 위에는 비누와 칫솔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11.본래 무대의 앞면 아래쪽에서 배우를 환하게 비추는 조명을 뜻하는 말. 13.수학에서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을 이르는 말. 14.발을 헛디딤. 또는 어떤 일에 실패해 있던 지위에서 물러남. 15.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에 이름. 또는 그 식견이나 인생관. ~의 경지에 이르다. 16.심을 납(蠟), 찰흙, 백악(白堊) 등의 광물질 물감을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게 만든 연필. 17.매매나 거래에 나타나는 호황, 불황 등의 경제 활동 상태. ~ 침체.

➔ 세로풀이

2.팔 때는 시세가 오름에 따라 점점 파는 수를 늘리고, 살 때는 내림에 따라 사는 수를 차차 늘리는 방법으로, 평균 단가를 조정해 손해 위험을 줄이려는 주식 거래 방법. 3.과학에서, 이론이나 현상을 실제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와 설비를 갖춘 방. 4.대를 쪼개는 기세라는 뜻으로,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르는 말. 5.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8.랩프, 전구 등 인공적인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 태양에서 나오는 천연의 빛. 이 건물은 천장에 창을 내어 ~이 들어오게 했다. 10.운동 경기에서 겨룰 차례를 정해 놓은 표. 11.각기 다른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가지각색. 12.군사 교육 및 훈련을 맡아보는 장교. 훈련병들은 ~의 구령에 맞춰 구보를 시작했다. 13.걸터앉아서 대소변을 보게 된 수세식 서양 변기.→양변기. 15.능숙하게 잘 쓰는 글씨. 또는 그런 글씨를 쓰는 사람.↔악필.

〈함께 풀어봅시다 262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진희종·광주시 서구 풍암동
박정희·광주시 북구 두암동

▲응모방법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6일(음 6월 24일 壬申)

子 36년생 돈은 생기나 쓸 구멍이 더 많다. 48년생 쌓아놓은 권부를 버려야 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처신하라. 60년생 준비를 단단히 하라. 72년생 구설수로 사면초가니 언행을 삼가 하라. 84년생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삼사일언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3, 41

丑 37년생 새로운 일에 도전 할 시기다. 49년생 하는 일이 불안하다 속사정을 살펴보라. 61년생 남편을 이해하라 고민에 빠졌다. 73년생 언쟁이 있으나 많은 이해로 애정은 새롭다. 85년생 가족의 식구가 늘어나는 경사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4, 27

寅 38년생 상황은 어려워지지만 해결의 기미는 보인다. 50년생 미운 사람이 보이면 조용히 피하라. 62년생 지나간 일도 다시 한번 살펴보라. 74년생 외출을 삼가 하면 소화도 막는다. 행운의 숫자 : 23, 43

卯 39년생 자식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긴다. 51년생 건강과 재물이 한꺼번에 위험하다. 63년생 위장이 괴로우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75년생 온 가족의 변동이 예상되나 북쪽은 길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辰 40년생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찾을 수 있으리라. 52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결말이 보인다. 6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나 언행을 조심하면 오히려 친구를 얻는다. 76년생 생각하던 일이 이루어진다. 행운의 숫자 : 10, 42

巳 41년생 기다리는 소식은 없고 마음은 어지럽다. 53년생 자신 있게 행동하라. 65년생 굉 먹고 알 먹는 좋은 일이 생기나 결과는 반반이다. 77년생 주변에 새로운 일이 생기나 결과는 미지수다. 행운의 숫자 : 06, 28

午 42년생 아침부터 서두르나 결과는 없다. 54년생 하루 종일 바쁘지만 소득은 미미하다. 66년생 아내의 얼굴을 살펴보라 좋은 일이 생겼구나. 78년생 고자질하는 부하가 보이니 사전에 단속하면 구설은 없다. 행운의 숫자 : 12, 30

未 43년생 짊어진 재물을 형제와 나누어 보라 기쁨은 배가 된다. 55년생 자신의 큰 죄를 살펴보고 아랫사람의 잘못을 파헤치지 말라. 67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욕심을 버려라. 79년생 촌음을 아껴 써라. 행운의 숫자 : 08,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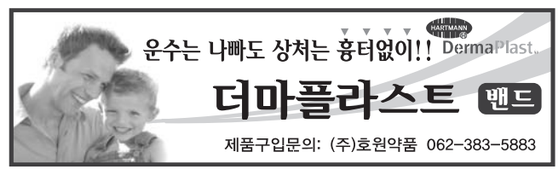
申 44년생 명예를 먹칠하는 구설이 생기니 자선을 베풀라. 56년생 상전이 벽해가 되고 벽해가 상전되니 자신을 돌아보라. 68년생 죽마고우의 친구를 잊지 말고 옛 정을 찾아라. 80년생 큰 소비가 생길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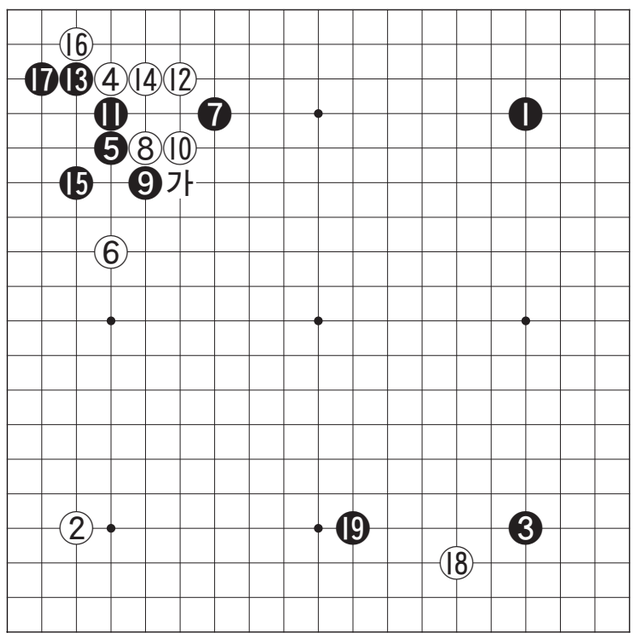
酉 45년생 모든 옛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길사가 있으리라. 57년생 안과계의 검진을 해보라. 69년생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니 상대방을 인정하면 평화롭다. 81년생 바늘허리 못 메어 쓰니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16, 22

戌 46년생 錦衣夜行 格이니 노력은 했으나 결과는 빛이 없다.58년생 어려움은 있어도 결과는 있다.70년생 능력을 발휘하나 칭찬이 없다. 82년생 소신껏 행동하면 윗사람의 인정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15, 33

亥 47년생 일보전진을 위해 이보후퇴를 해도 늦지 않다. 59년생 성급한 결정은 매사가 헛일이니 결정은 내일로 미루라. 71년생 칭찬을 아끼지 마라 부하가 무심하다. 83년생 진퇴양난이지만 돌파구는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1, 34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백전노장과 신진고수 3국1보(1~19)

白 박정규 5단 (KT전남본부) 黑 김광식 5단 ((주)송림)

열전에 열전을 거듭하며 치열한 순위다툼을 벌이던 제16회 광일배 직장바둑대회도 입상팀들이 윤곽을 드러내며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 판은 선두권을 형성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주)송림의 김광식 5단과 강력한 우승후보인 KT전남본부의 맹장 박정규 5단의 대결이다. 양팀은 현재 빛고을교사회와 함께 3강을 형성하고 있어 이 판의 승부에 따라 우승의 향방이 가려진다.

흑을 든 김광식 5단은 이지역 아마바둑계의 터줏대감으로 아마 최강전 우승 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는 백전노장이며 백을 든 박정규 5단은 신진강호로 직장대회에서 수많은 입상경력을 쌓아오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지역 전통의 아마강자와 신진고수의 대결인 셈인데 입상순위와 맞물려 더욱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한판이다.

백 14까지 되었을 때 '가'로 밀지않고 흑 15로 호구친 수가 구형정석이다. 김광식 5단은 관록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최근에는 거의 쓰지 않는 옛날정석을 선보이고 있다. 어쩐지 오래전의 바둑을 보는 것같은 진행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이영구, 물가정보배 결승1국 승리

이영구 6단이 이세돌 9단을 꺾고 생애 첫 메이저 기전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이영구는 지난 3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한국물가정보배 프로기전 결승 3번기 제1국에서 이세돌을 상대로 치열한 난전을 벌인 끝에 231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영구는 이세돌과의 상대전적에서도 3승1패로 앞서며 '천적'으로 떠올랐다.

반면 최근 9연승을 달리고 있던 이세돌 9단은 연승질주가 스톱되면서 물가정보 2연패 달성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결승 2국은 오는 9일 같은 장소에서 속개된다. 우승상금은 2천200만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63>

Where do you come from?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A : Where do you come from?
B : I come from Victoria, Canada.
A : How nice! I hear it's a beautiful city.
B : Yes, it is. Where do you come from?
A : I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 : 어디서 오셨습니까?
B : 캐나다 빅토리아입니다
A : 와 멋진 도시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 곳은 아름다운 도시라던데요.
B : 네, 그래요. 당신은요?
A : 전 미국 출신입니다.

* 미국 어디 출신입니까?
= What part of the States are you from?
* come from~ : ~출신이다
* hear from~ ; ~의 소식을 듣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63>

あれは入(い)れ墨(ずみ)じゃなくて,タトゥーですよ

그것은 문신이 아니라 타투입니다

A : 最近入(い)れ墨(ずみ)をしている女性が増(ふ)えましたね。
B : ああ、あれは入(い)れ墨(ずみ)じゃなくて, タトゥーですよ。
A : へえ、入(い)れ墨(ずみ)と, どう違(ちが)うんですか。
B : うん, 結局(けっきょく)は同じものなんですけど, やくざがするのが入(い)れ墨(ずみ)若い人が欧米(おうべい)のファッションの影響でするのが、タトゥーです。

A : 요즘 문신을 하고 있는 여성이 늘어났어요.
B : 아-, 그것은 문신이 아니라 타투입니다.
A : 아니, 문신과 어떻게 다른 겁니까?
B : 음, 결국에는 같은 것이지만, 불량배가 하는 것이 문신이고 젊은 사람이 구미 패션의 영향으로 하는 것이 타투입니다.

入(い)れ墨(ずみ) : 문신
増(ふ)える : 증가하다, 불어나다
欧米(おうべい) : 유럽과 미국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153>

以后你想做什么工作

앞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니

A: 以后你想做什么工作?
Yǐhòu nǐ xiǎng zuò shénme gōngzuò?
B: 我想当一名京剧演员。
Wǒ xiǎng dāng yìmíng jīngjù yǎnyuán.
A: 你不想当画家了?
Nǐ bùxiǎng dāng huàjiāle?
B: 当然也想。你看这是我的画儿。
Dāngrán yě xiǎng. nǐ kàn zhè shì wǒde huàr.

A: 앞으로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싶니?
B: 나는 경극 배우가 되고 싶어.
A: 너는 화가가 되고 싶지 않아?
B: 물론 하고 싶지. 봐봐 이것은 내 그림이야

当 [dāng] ~이(가) 되다 (담당하다)
京剧演员 [jīngjù yǎnyuán] 경극배우(연기자)
画家 [huàjiā] 화가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7~8

한자 이야기 <580>

談論(담론)

말씀 담, 의논할 론

담론(談論)은 담화와 의논이라는 뜻이지만,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이래 '디스커스(discourse)'라는 말의 번역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을 일본에서는 '언설(言說)'이라고 번역한다.

언어학적 정의로 담론(discourse)이란 문장(sentence)보다 덩어리가 큰 언어적 진술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로 전달하는 모든 행위로 풀이한다. 하지만 현재는 담론을 다양한 학문분야와 사상조류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즉 일상적인 담화에서 시작하여,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으로 체계를 갖춘 언설들, 나아가 때로는 과학적 명제들까지 포괄한다.

푸코가 말하는 담론(談論)이란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방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법률적 담론', '미학적 담론', '의학적 담론'과 같은 말처럼, 역사적으로 존재하면서 물리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담론은 개인 사이의 의사교환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진다'라는 익명성의 층위(層位)에 존재한다고 푸코는 설명하였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